

중국의 한국문학 교수현황에 대한 연구 -요녕성 대학을 케이스로

원영혁* · 권혁철**

1. 들어가기

주지하다시피 중국 절대다수 대학교의 한국어 전공은 1992년 중한 수교 이후에 설립하였는데 20여 년 동안에 많은 대학교의 한국어 전공은 급속도로 발전하였고 교수진과 학생수도 대폭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어학과 과목의 설정, 교재의 편찬이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한국어 전공이 외국언어문학의 하위 범주로 개설되기 때문에 ‘한국문학’ 과목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전국 각 대학교에서 한국문학 관련 과목을 개설한 현황을 살펴보고 요녕성의 4개 대학을 케이스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요녕성에 현재 한국어 전공을 개설한 대학교(전문대는 논외로)는 대련외국어대학교(대련), 요녕대학교(심양), 대련민족대학교(대련), 요동대학교(단동) 등 네 개 대학이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한국문학 교육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 원영혁: 대련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부교수, 중한비교문학 전공

** 권혁철: 대련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부교수, 한국어문법 전공

제시하였는데 한국문학 교수법을 혁신하는 데에 유용한 근거가 되기를 바란다.

우선 중국의 한국어 교육 분포상황을 살펴보겠다. 한국어 학과를 설립한 대학은 화동지역이 제일 많고 동북지역이 그 다음이며 화중, 서북, 서남, 화남 등 네 개 지역에 한국어 학과를 설립한 대학교는 비교적 드문다. 2009년까지, 장국강(2009)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4년제 한국어 전공을 설립한 대학교는 총 7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동북 지역에 18개가 있고, 동부 연해지역에는 35개가 있으며, 북방지역에는 12개가 있고, 남방지역에는 7개가 있으며, 서북지역에는 4개 밖에 없다.¹⁾ 화동지역에서 비교적 많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대표성이 있는 두 대학교—산동대와 남경대를 조사대상으로 정하였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한 학교씩 골라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주로 한국문학 교육에 관련된 과목명, 교수 기간, 교재사용 상황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실시했는데 조사결과는 <표 1>과 같다.

이상의 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중국 대학교에서 개설한 한국문학 과목은 대부분이 ‘한국문학의 흐름’ 또는 ‘작품 독해’로 되어 있고 한 학기 혹은 두 학기에 걸쳐 교육되고 있다. 그러나 사용된 교재는 아주 다양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중국 대학교의 다른 전공과목과 비교해 볼 때 규범적이지 못한 것 같다. 물론 규범성이 결여된 것은 한국어전공의 짧은 역사와 관계가 있다. 대다수의 대학교 한국어 전공은 1995년 이후 심지어 2000년 이후에 설립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통일된 교수 체계를 이루는 것이 힘든 것도 또한 현실이다.

1) 张国强, <중국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중국어학> 제33집(2009), pp.105~124.

〈표 1〉²⁾

지역	대학교 이름	과목명	교수 기간 (학기수)	사용된 교재
화동 지역	산동대학교	조선문학사(1~2), 조선한문학 조선고전문학작품선독	2, 1, 1,	한국어 자료를 사용함 (한국 원어민 교사 담당)
	남경대학교	조선(한국)문학간사(필수) (1~2) 조선(한국)문학작품선독 (선택)(1~2) 중한문학기교(예비과목)	2, 2, 1	<조선한국당대문학사> 김병민 외 편저; 한국어자료;
동북 지역	연변대학교	조선한국문학사 朝鮮韩国文学作品选读	1, 1	《조선문학사》김병민 저; 《조선한국당대문학사》 김병민 외 편저;
화북 지역	북경대학교	한국문학사(상, 하)	2,	《한국문학작품선독 (상하)》김영금 편저 한국어자료(한국원어민 교사 담당)
		한국문학작품선독(상, 하)	2	
화남 지역	광둥대 외 경제무역 대학교	없음(3학년때부터 한국에 유학 보냄)		
화중 지역	낙양외국어 대학교	문학선독 1, 2	2	《한국문학작품선독 (상하)》김영금 편저
서북 지역	서안외국어 대학교	한국문학사	1,	《한국문학사》, 강은국 편 한국어자료
		한국문학작품선독	1	
서남 지역	사천외국어 대학교	문학간사 문학작품선독	1, 1	미상

2) 위의 표는 기존 참고 자료가 없었으므로 필자가 직접 각 학교와 연락해서 일일이 확인해서 정리한 결과이다.

2. 선행연구

지금까지 중국에서 한국어 언어교육이나 한국문학의 교육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³⁾ 이와 같은 연구는 거의 1995년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초기에는 중국 한국어 교육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는 논문이 많았다. 2005년 이후에 개황에 대한 연구로부터 구체적인 케이스 연구에 이르렀다. 예컨대, 전영근(2006)은 광동대외경제무역대학의 한국어학과를 케이스로 연구하였는데⁴⁾ 실제 사안을 가지고 논의하였기 때문에 선행연구보다 깊이 있게 연구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 외에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구체적인 과목을 연구 대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오로지 노금숙(2009)의 <한국어전공의 문학교육에 대한 생각>⁵⁾만이 문학교육의 현황을 대상으로 하여 범위를 축소해서 연구했다. 그렇지만 이 논문도 문학과목의 개설 상황을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 조사하고 논의하지는 못했다.

3) 金秉运, 吴相顺: <目前中国大学韩国语教育的主要问题及解决的方案>, 《黑龙江民族丛刊》, 2008(106), pp.155-160.

牛林杰: <中国的韩国语教育现状及存在的问题>, 《新国语教育》, 1996(53), pp.143-152.

金英玉: <中国的韩国语教育成果提高方案考察>, 《双语学》, 2005(27), pp.137-159.

齐晓峰: <韩国语教育的现状、问题与发展构想>, 《清华大学教育研究》, 2008年 4月, pp.115-8.

金银花: <韩国语教育教学方法的探索>, 《外语研究》, 2006年 10月中旬刊, pp.150-1.

4) 全永根, <韩国语教育现状及发展前景—以广东外语外贸大学韩国语教育为例>, 《广东外语外贸大学学报》, 2006, 8, pp.108-11.

5) 卢锦淑: <朝鲜语专业文学教育之思考>, 载《当代教育论坛》, 2009年 第5期 下半月刊, pp.112-4.

교육에 대한 연구는 물론 이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육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문학의 교수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인 케이스를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교수는 ‘가르침’과 ‘배움’ 양측을 맞물려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논의하면 못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 논문은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련외국어대학을 비롯한 요녕성의 4개 대학을 조사대상으로 100부에 가까운 설문지를 배부해서 조사를 진행했다.

3. 문학과목개설 현황

조사에 따르면 요녕성에서 한국어전공 4년제 정규과정을 설치한 대학은 요녕대학교, 대련외국어대학교, 요동대학교, 대련민족대학교 등 네 개 학교가 있다. 이 네 개의 대학교에 비록 한국어전공이 설립되었지만 인재양성 방향이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요녕성 성소재지인 심양시에 자리 잡고 있는 요녕대학교의 한국어학과는 ‘조선어(중한경제무역관계방향)’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국제관계대학에 소속되어 있다. 인재양성방향은 ‘동북아지역정치인재의 양성’이라고 적혔고 한국어를 언어적 도구로 중한경제무역의 이론 및 실무를 깊이 파악하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중국인 교수는 5명인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인재양성의 방향은 주로 동북아국제관계 혹은 중한(남북한) 경제무역 관련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때문에 과목의 개설도 한국어를 배우는 기초 과목 이외에 대부분이 경제 무역과 관련된 과목이다. 문학과목은 아예 개설되지 않고 있다.

요동대학교는 요녕성 단둥시에 자리 잡고 있으며 조선과 압록강을 마주하고 있어 북한과 가장 인접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학교의 한국 조선경제와 문학대학에 전공이 조선어(4년제), 조선어(한조무역방향 4년제)와 실용한국어(비즈니스 한국어 3년제) 등 세 개로 나누어져 있다. 조선어전공은 다른 두 전공보다 양성 목표가 더 높고 교수 체계나 교수 수준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졸업생들에게 문학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현재 조선어(4년제) 전공의 중국인 교수는 12명인데 다른 전공보다 규모가 크다. 문학 관련 과목명은 “조선한국 문학사”인데 6학기 한 학기만 교육한다. 사용된 교재는 연변대학교출판사에서 출판된 <조선한국문학사> (김병민 편)이다. 이 학교에서는 4년제 한국어전공 2009학번 학생 4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했다.

대련민족대학교 한국어학과는 외국언어문학대학에 소속되어 있는데 2008년 9월부터 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양성 목표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언어 실력, 종합소양, 실천능력을 키우고 사회적 경쟁력을 갖춘 국제적, 실용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양성 목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학교의 한국어학과는 여러 면에서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교육체계를 세운 것이었다. 졸업생들에게 문학학사학위를 수여한다. 현재 재직 중인 중국인 교수는 8명이다. 개설된 문학과목은 “한국문학사”이고 6학기 한 학기만 개설한다. 사용된 교재는 <한국문학간사와 작품선독>(한위성 편)이다. 이 학교에서는 2009학번 학생 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련외국어대학교는 1994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학부 교육은 5년제 조선어(한일복수)와 4년제 조선어(한국언어문화) 전공이 있다. 주로 여러 면에서 학생들의 능력을 키우며 실용적이고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부생수는 총 680명이고 졸업생들에

게 문학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재직중인 중국 교수는 총 25명이고 그 중에 석사지도교수 자격이 있는 교수는 14명이다. 요녕성에서 이 학교의 한국어학과 규모가 가장 크고 역사가 가장 오래 되었다. 대학원생은 현재 100여 명이 되는데 중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이 학교에서 개설한 문학수업은 ‘한국문학사’인데 4년제 학생들은 7학기, 5년제 학생들은 9학기 한 학기 수강한다. 사용된 교재는 <한국문학간사와 작품선독>(한위성 편)이다. 이 학교에서는 2008학번 학생 29에게 설문조사를 했다.

4. 학생들의 수용 상황

본 논문에서 문학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수용 상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문제는 설문지에 이와 관련된 문제는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1, 2, 3, 7번과 같은 학생들이 문학 수업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이해 정도를 조사한 문제들이다. 다른 하나는 4, 5, 11, 12, 17번과 같이 학생들이 수업의 현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문제들이다.

1, 2, 3, 7번 문제는 선택문제로 설정했는데 조사 결과를 보면 요동대학교에서는 93%, 민족대학교에서는 61%, 대련외대에서 72%의 학생들은 문학 수업의 개설은 앞으로의 취업이나 진학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것은 학생들이 문학 수업의 실용적인 가치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지만 이 수업은 앞으로의 ‘학위 명칭과 관련 여부’를 조사했는데 요동대학교는 52%, 민족대학교는 65%, 대련외대는 66%의 학생들은 부정적인 답을 하였다. 이런 결과는 한국어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학문적인 지도가 부족하였고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와 학문 분야와의 관계에 대한 지도가 부족

하다는 상황을 반영했다. 문학 수업의 역할에 대해서 요동대는 58%, 민족대는 52%, 대련외대는 76%의 학생들이 ‘한국문화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답을 선택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들이 문학 수업에 대한 이해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이런 결과는 한편으로 문학 과목을 맡은 교사가 문학의 참된 성격을 점진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학생들의 욕구에 따라 작품 해석을 할 때 문화의 시각에서 설명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5, 11, 12, 17번 문제는 현재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는 문제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요동대는 87%, 대련외대는 83%의 수업은 이 수업의 개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민족대는 57%의 학생들은 현재의 문학 수업은 ‘교육의 목적에 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러한 차이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대학교 간에 소통이 많이 부족하고 서로 배울 만한 것이 많은 것이다. 특히 대련외대와 민족대는 같은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 인재 양성의 목표에도 별 큰 차이가 없기에 문학 수업 교수법 관련 서로 배울 것이 많다고 본다. 주관식 부분에서 세 학교의 대부분 학생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만족하다’는 답안을 썼고, 어떤 학생들은 합리적인 건의도 제기했다. 이런 건의들은 문학 수업의 개선 방안을 세우는 데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11, 12번 문제는 현행 교재에 관한 조사인데 요동대는 45%, 민족대는 52%, 대련외대는 41%의 학생들은 현행 교재는 한국어로 된 부분이 너무 많다고 하였고, 요동대는 40%, 대련외대는 90%의 학생들은 현행 교재에 작품의 배경에 대한 소개가 부족하다고 했다. 교재에 대한 이해 정도에 있어서 요동대와 대련외대는 48%의 학생들이 교재를 50% 정도 이해했다고 하였고 민족대는 52%의 학생들이 30%밖에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요동대는 2명의 학생만 70%를 이해했다고 하였고 기타 학생들은 교재의 50%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다시 한번 문학

교육에 문제가 있다 것을 반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재를 중심으로 한 수업 내용을 잘 소화하지 못해 대충 읽어 보고 넘어간다는 경향이 뚜렷하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문제에서 조사한 결과는 1, 3번 문제에서 학생들이 보여준 수업 열정과 모순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은 문학 공부를 할 열정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열정이 수업 받는 과정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어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교재의 사용 및 편찬, 교수법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교재의 결함에 대한 선택 사항들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은 작품의 배경에 대한 소개가 부족하다고 했다. 그것은 7번 문제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문학 수업의 역할이 ‘한국문화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해와 일백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가르치는 교사가 작품 내용을 강독하는 것보다 이 작품과 관련되는 시대적 배경, 역사적 맥락, 관련된 한국 문화, 한국적 풍토 등도 함께 강의해야 된다는 것이다. 세 학교의 학생들은 모두 한국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3년의 한국어 공부를 가지고 한국어로 된 문학작품을 읽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 문제는 “가나다라”부터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보편적인 문제이다.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뜻깊은 문학적 내용을 가장 쉽게 해석하고, 가장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는가가 문학 수업의 난관이다.

5.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

설문지의 6, 8, 9, 10, 13, 14, 15, 16, 18번과 같은 많은 문제는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에 관한 내용이다. 이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오픈식의 선택

문제와 주관식 문답문제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학 수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수업 내용에 대해 요동대에서 83%, 대련외대는 72%, 민족대는 30%의 학생들이 한국문학과 조선문학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이런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요동대는 단둥이라는 지역적인 특징과 관련시켜 인재 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북한이라는 나라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 같다. 문학작품의 시기에 대한 조사에서 요동대는 67%, 민족대는 61%, 대련외대는 62%의 학생들은 고대문학과 현대문학이 각각 반을 차지한 수업 내용을 원한다고 하였고 이 문제에서 세 학교 학생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했다. 수업의 과목에 대해 요동대는 58%, 민족대는 65%, 대련외대는 62%의 학생들은 위에서 말한 ‘한국문학사’와 ‘작품선독’ 이외에 ‘중한비교문학’을 개설하였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11번 문제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어가 많고’, 12번 문제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50%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결과와 관계된다. 중한비교문학수업의 개설은 한편 학생들이 파악하고 있는 중국문학의 지식으로 수업시간에 자유롭게 발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중국문학과 비교하면서 한국 문학을 강의하면 학생들이 보다 쉽게 문학 전반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고 문학 과목의 언어적인 어려움을 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교수 내용을 조정하고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재를 편찬하는 데에 유용한 근거가 된다. 교재에 수록된 작품의 시기, 국별, 해석 시각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유용한 정보를 전달했다.

그 다음에 교수법에 대해 요동대는 68%, 민족대는 70%, 대련외대는 76%의 학생들은 합리적인 교수법은 ‘미디어를 이용한 동영상’이 있어야 된다고 하였고 각각 65%, 86%, 48%의 학생들은 ‘개인적 발표’가 있어야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학생들이 문학 수업이 어렵다고 느끼지만 적극적으로

로 수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능동성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교수법을 새로운 미디어와 결부시켜 혁신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문학 수업을 개설한 학기수에 대해 요동대는 40%, 민족대는 61%, 대련외대는 55%의 학생들이 한 학기만 하면 된다고 하였고 각각 50%, 35%, 34%의 학생들은 6학기부터 두 학기 해야 된다고 하였다. 대련외대와 같은 경우는 7학과 9학기(한일전공) 때 하는데 교수자인 필자도 좀 늦게 개설되고 있다고 느낀다. 물론 늦게 개설할 수록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이 더 높아져 문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졸업학기인 8학과 10학기(한일전공)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사회 실천이나 취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전 학기인 7학과 9학기에 도 영향을 주어 학생들이 마음을 안정시켜 문학 수업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마지막의 주관식 문답형 문제에서도 많은 학생들은 취직 준비나 면접때문에 이 수업에 전력으로 참여하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교학관리측은 합리적으로 교수 학기를 배정하는 것은 이 수업의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6. 결과 분석 및 제안

이상에서 설문지의 내용에 따라 요녕성 대학교에서 한국문학 교육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문학을 배우려는 능동성이 있으나 실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대치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 이와 같은 문제의 발생은 과목의 배정 시기, 과목내용, 교재내용, 교수법 등 면에서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교학관리측은 인재 양성 목표와 결부시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수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학생들의 의견 중 서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예컨대 11번 문제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현행 교재에서 한국어 부분이 너무 많다고 답했지만 10번 문제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에서 나온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모순된 선택은 학생들이 많은 것을 기대하지만 학생들의 언어 실력으로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반영한다.

한편 학생들의 요구와 대학교의 양성 목표에도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대련외대의 경우를 보면 2009년의 ‘한국어전공 인재양성방안’에 따르면 학생들의 지식능력에 대한 요구에서 발음, 문법, 단어량, 번역, 응용문 글 쓰기, 듣기 등 언어 기초 면에서 상세하게 요구했지만 문학에 대한 이해의 면에서는 명확한 요구가 없다.⁶⁾ 양성 방안과 학위 명칭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한편 한국어교육이 대학에서 영기초 외국어 교육이기 때문에 실제 경험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4년의 학습 기간을 통해 기초적인 언어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어 낼 수 있지만 소설, 시, 희곡을 독해하는 데에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다른 한편 절대다수의 대졸생들은 공무원이나 기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학연구를 계속 연구할 학생들이 극소수인데 문학교육은 졸업생들이 당장 필요한 취직 관련 지식과 거리가 있으므로 양성 방안이 기재되지 못한 것 같다. 사실은 주지하다시피 문학교육은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지만 문학은 인간의 내면에 일단 들어가면 오랫동안 개인의 정체성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바른 문학교육이야말로 대학교육의 급선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문제점을 감안해서 교학관리측은 현실에 맞게 문학 수업을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의 분석자료를 근거로 필자는 다음과 같은 몇

6) 大连外国语学院教务处编,《大连外国语学院本科专业人才培养方案(2009版)》, p.121.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전공 과목을 맡은 교수들의 전공 수준을 높이고 교수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6번 문제에서 반영되듯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 문학뿐만 아니라 북한 문학도 배우고 싶어한다. 그러나 현재의 교수진은 대부분이 이와 같은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역사적, 국제정치적 이유로 당분간 쉽게 해결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 문학을 방치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둘째, 교수법을 혁신하고 교수의 시각을 융통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 7번과 11번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은 한국문학을 한국문화나 역사를 이해하는 수단로 간주하고 있다. 때문에 교수 방향도 작품 중심보다 작품과 관련된 역사적, 문화적 지식을 함께 강의하는 것으로 조정해야 한다. 교수법은 동영상, 조별 발표, 연극 등 방법을 취해 학생들의 능동성을 가능한 발휘시켜야 한다. 물론 이 가운데 담당 교수는 문학의 본질적인 성격도 잘 교육하고 심도 있으면서도 쉽게 해석하는 교수법이 필요하다.

셋째, 적합한 교재를 편찬하고 교수 내용을 보완시켜야 한다. 설문지의 8, 9, 10, 11, 16번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현행 교재를 가지고는 학생들의 학습 목적에 달성시킬 수 없다. 작품 시기로부터, 국별, 중국문학과와의 관계 등 내용을 교재에 반영시켜야 한다. 그 이외에 한국어로 된 설명이나 텍스트의 선정도 될수록 3학년 하반기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해야 한다.

요녕성에서 한국문학 교육을 하고 있는 이 세 개의 대학교에 대한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교 사이에도 많은 차이가 있고 전반적인 상황도 보완할 부분이 많다. 요녕성뿐만 아니라 중국 전국의 한국문학 교육도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교수진이나, 교수내용, 교재편찬 등 많은 면에서의 의견교환이 필요하고 같이 규범적으로 해 나가야 할 데가 많다.

문학 교육은 학생들의 언어적 기능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올

바른 인생과, 사회적 책임감을 심어주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 기초 외국어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교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깊이 탐구 해야 할 문제이다. 최근 몇 년 동안에 한중 양국 학계의 빈번한 교류가 많아지고 있는데 문학의 교류에 힘을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중한양국문화교류를 주관하는 기관인 한국문화원, 한국문학번역원이나 한국대산문화재단 등 기관은 한국문학의 번역 인재, 비평인재, 문화교류 인재를 많이 양성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사업들도 한국문학교육의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본다.

이상에서 요녕성 지역의 대학교에서 한국문학 수업의 개설 현황을 케이스로 중국내에서 한국문학 교육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에서 한국문학의 교육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현장 조사, 상호간의 의견 교환, 협동적인 교재편찬 등 중한한국어교육계 모두의 주목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e Status Analysis of Korean Literature in China: Take the Case of Universities in Liaoning Province

Yuan, Ying-yi and Quan, He-zhe

South Korean literature is an essential course of the Korean professional education process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However, it is surveyed and found that the course is still lacking in standardization from the aspects of teaching material, teachers and so on through the thesis. The thesis takes the situation of professors from four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Liaoning Province as the case, and it investigates the present situation of courses' offerings, the present situation of students' acceptance and the teaching requirements from students by means of questionnaire surveys. And, it finds out some specific problems, and proposes corresponding reform schemes to those problems.

Key Words: Teaching method, Analysis of a course, South Korean literature, Liaoning Province China